

왜 우리는 먹기만 하면 싸우는가?

전문가 칼럼 - 먹방의 윤리학

최태섭
문화'불평'가

루리웹 음식갤러리는 자기가 먹은 음식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간단한 글을 덧붙이는 인터넷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걸핏하면 댓글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대단하다(?). 일례로, 가장 유명한 사건인 이른바 “새우대첩”的 경우를 살펴보자. 이 사건은 어떤 회원이 새우튀김을 치킨처럼 배달해주는 업체가 있다며 시켜먹은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글이 올라온 후 대부분의 다른 회원들은 집에서 튀기기 번거롭고 사먹으려 가기 힘든데 저런 것이 있으면 편하겠다며 호의적으로 반응했다. 그런데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한 회원이 “편하게 먹는 가격 XX원... 결혼은 하셨는지...”라는 짧은 댓글 하나로 게시물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슈퍼에서 파는 냉동 새우튀김을 사다가 직접 튀겨먹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경제적이며, 게시글을 올린 회원은 그런 것도 모르고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시켜먹고 있으니 세상물정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다.

우리 주변 ‘먹방’ 게시글 이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

이것은, 하나의 작은 사례일 뿐이다. 온라인에서 먹는 것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의 ‘집밥’을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공방전, 연예인의 ‘먹방’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 누군가가 올린 음식을 두고 벌어지는 댓글전쟁 등등. ‘내가 먹는 것들에 대한 비난’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식욕과 문화적 욕구가 기묘한 방식으로 결합해 있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쟁쟁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가르치려들지 않는 것이다. 하지



만 인간에게는 가르치고 싶은 본능이라도 있는 건지, 언제나 분쟁을 일으키는 맛선생 아니 맛꼰대들이 있다. 이들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친환경 맛시스트’다. 이들은 모든 먹거리 를 그것이 친환경인 아닌가, 합성첨가물이나 MSG가 들어갔는가 아닌가로 나누어 후자를 맹비난한다. 그런 음식을 파는 것은 물론이고 먹는 것도 이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주로 건강식 제일주의자들이 주로 이

기사 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사 웰 먹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라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급기야는 분노에 차서 “맛도 모르면서!”를 외친다. 물론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알려주는 것은 정보공유 차원에서도 좋은 일일지만, 남의 입속사정에 침전하는 것은 솔데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나를 바라봐 달라는 ‘먹방’ 영혼의 허기도 채울 수 있을까

세 번째 부류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부류로 “가성비”에 목을 매는 이들이다. 20~30대의 젊은 남자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들은 ‘가격대 성능비’라는 다소 공학적인 느낌의 기준으로 음식을 평가한다. 직접 요리를 하기보다는 사먹는 것에 익숙한 젊은 남성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들이댈 때다. 가령 위의 ‘새우대첩’은 이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다. 이 것의 기준은 과거 패밀리레스토랑부터 시작해서 계속 변화해오고 있으며, 이른바 “된장녀” 등으로 나타난 여성혐오의 행태와도 일치하곤 한다. 이들에게 가성비란 다시 말해 음식 사업은 사양길에 접어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을 선사하지 못해 안달인 오늘날에 말이다.

마지막 부류는 간단히 말해 어머니의 손맛 주의자들이다. 이 사람들도 어머니가 미슐랭 3스타 세프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저 어린 시절부터 먹어왔던 익숙한 맛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을, 기어코 사단을 내는 이들이다. 이 경우 문제는 맛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이 가진 의미로부터 발생하는데, 이 타령을 하는 이들은 대체로 남성이고, 손맛 타령에는 반드시 헌신, 희생, 사랑 같은 가치들이 반찬처럼 걸들여진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가치들에 대한 찬양은 남녀의 성역할, 가사분담과 같은 이슈들에서 아주 고리타분한 결론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결국 남이 웰 어떻게 먹든 신경을 안 쓰면 되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양곳다. 왜냐하면 그토록 많은 유민과 평범한 사람들이 죽어 올리는 ‘먹방’이며 ‘먹짤’들은 제발 이것 좀 봐달라고,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있으며 잘 살고 있다고 말해달라고 애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있을까? 영혼의 외식 사업은 사양길에 접어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을 선사하지 못해 안달인 오늘날에 말이다.

질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왜 정치권력이 필요한가, 또는 왜 정치권력에 복종해야 하는가? 둘째, 어떤 권력에 복종해야 하는가? 즉, 정당한 정치질서는 어떤 원칙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들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치안논리, 자발적 동의의 논리, 민주적 참여의 논리라는 근대 정치권력의 주요한 정당성의 원칙을 세우게 된다. 치안논리는 특히 흡스가 강조하고, 자발적 동의의 논리는 로크가 중시한 것이다. 치안논리와 자발적 동의의 논리는 흡스, 로크, 루소 모두에게 발견된다. 반면에 민주적 참여의 논리는 루소가 고유하게 제시한 원칙이다.

로크의 사상은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모두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루소는 프랑스 대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생각들이 근대 시민혁명들을 거쳐 현재 지배적인 정치질서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제시한 논리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생각이 근대 시민혁명을 거쳐 현재 지배적인 정치질서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 1면에서 이어짐

계약론자들이 제시한 사회계약의 성격과 내용은 자연상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개인들이 계약을 맺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나 등에 따라 다르다. 우선 흡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상태’라고 보았고, 계약의 목적은 바로 각자의 안전이다. 그래서 개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전적으로 양도하여 그가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른 절대권력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로크는 자연상태를 흡스처럼 전쟁 상태라고까지 보진 않았지만, 개인들의 자연권, 특히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권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인들이 각자의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 정부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소유권 보호라는 목적에 충실히 못한다면 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저항할 수 있게 된다. 루소의 경우, 사회계약이란 “자연상태를 구성하는 인간이 자신의 모든 힘과 주권을 공

참여마당

박상우
회계세무학 2013

가을, 우리 마음까지 따뜻하게 준비하자

쨍쨍한 햇볕을 견디기 힘들던 여름이 한 물 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오후엔 아직도 여름이 그 기세를 다하지 않은 듯 덤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면 서늘한 바람이 후덥지근해 졌던 몸을 식혀준다. 밤이 되면 여름옷으로는 쌀쌀하고 새벽에 이불이 없으면 춥다는 것을 느끼며 변해가는 날씨가 내게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을 불러 일으킨다.

이런 자그마한 변화들이 서서히, 알게 모르게 일어나 우리에게 가을이 바로 앞에 있음을 느끼게 한다. 가을이 오는구나. 이제 다시 빨갛고 노란 이파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주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알아보다가 24절기 중 백로가 그 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풀잎에 하얀 이슬이 맷히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백로(白露)라고 한다. 이 시기가 되면 새벽의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에 이슬이 맷히기 시작한다고 한다. 완연한 가을의 기운을 백로라는 이름 두 글자에 담은 것이다.

매일을 초 단위로 나눠 살지만 ‘오늘’의 의미는 이미 멀다. 시간은 흐르고 셋바퀴 돌듯 바쁘게 살아간다

설명을 읽다 보니 옛 선조들의 지혜가 어찌나 재밌던지 스마트폰을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름의 끝임과 동시에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입주부터 비로소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날이 계속될 것임을 알려주는 쳐서, 벼락이 사라지고 벌레가 땅 속으로 숨어든다는 주분까지.

검색을 이어가다 보니 한 속담이 눈에 들어왔다. ‘쳐서가 지난면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는 속담이었다. 더위가 꺽이고 여름을 상징하는 곤충인 모기의 위세가 누그러진다는 것을 해학적으로 풀이한 선조들의 재치에 웃음이 절로 나왔다. 이번 여름에는 이상하리만큼 모기에게 많이 물렸는데, 이제는 모기 입이 비뚤어졌기를 기대해 봐도 되나 보다.

24절기를 읽다보니 경칩, 춘분, 소만, 하지, 쳐서, 동지 등 덧없이 흘려보낸 날들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가 하고 돌아가 본다. 절기 속 하루하루는 그 날의 날씨, 태양의 위치, 풍향 등 농업이 일상이자 생계수단이었던 조상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다. 이제는 산업화로 날씨와 같은 외부 환경에 얹매이지 않게 됐다. 사람들은 매일 초 단위까지 나눠 살지만 ‘오늘’에는 의미를 두지 않게 됐다. 시간은 흐르고 셋바퀴 돌듯 바쁘게 살아간다.

이제는 피부에 느껴지는 쌀쌀함에 대비할 때가 되었다. 긴 옷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차가운 마음 한 가운데도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바쁘게 사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느린 평화’를 누릴 누군가는 필요하다. 바쁘게 일한 결과를 느긋하게 맛 볼 시간도 없다면 바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 가을을 느끼며 한 잔 커피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한 숨 쉬어가는 그 시간은 앞으로의 일상을 더 풍부한 시선으로 즐길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경희대 졸업앨범 촬영 앤드

| 촬영 시장 (주) | 촬영 일자 (주) | 촬영 장소 (주) |
|-----------------------------|-----------|--------------------------------|
| 10:00 산업문화재단, 대전 100주년 기념관 | 10:00 | 스포츠도복과 대전 100주년 기념관 |
| 11:00 산업문화재단, 대전 100주년 기념관 | 11:00 | 건강증진과 문화 및 환경문화관과 대전 100주년 기념관 |
| 11:30 스트로크체육관, 대전 100주년 기념관 | 11:30 | 운동체육관과 대전 100주년 기념관 |
| 12:00 운동체육관, 대전 100주년 기념관 | 12:00 | 운동체육관과 대전 100주년 기념관 |
| 12:30 운동체육관, 대전 100주년 기념관 | 12:30 | 운동체육관과 대전 100주년 기념관 |
| 13:00 운동체육관, 대전 100주년 기념관 | 13:00 | 운동체육관과 대전 100주년 기념관 |
| 14:00 운동체육관, 대전 100주년 기념관 | 14:00 | 운동체육관과 대전 100주년 기념관 |
| 14:30 운동체육관, 대전 100주년 기념관 | 14:30 | 운동체육관과 대전 100주년 기념관 |
| 15:00 운동체육관, 대전 100주년 기념관 | 15:00 | 운동체육관과 대전 100주년 기념관 |
| 15:30 운동체육관, 대전 100주년 기념관 | 15:30 | 운동체육관과 대전 100주년 기념관 |

▶ 촬영 장소
- 시민체육관(운영사: 희망체육단) 304호, 310호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1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2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3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4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5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6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7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8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9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10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11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12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13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14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15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16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17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18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19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20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21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22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23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24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25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26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27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28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29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30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31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32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33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34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35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36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37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38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39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40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41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42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43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44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45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46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47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48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49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50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51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52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53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54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55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56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57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58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59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60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61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62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63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64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65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66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67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68층
- 대전 100주년 기념관(운영사: 대전시립미술관) 69층
- 대전 100